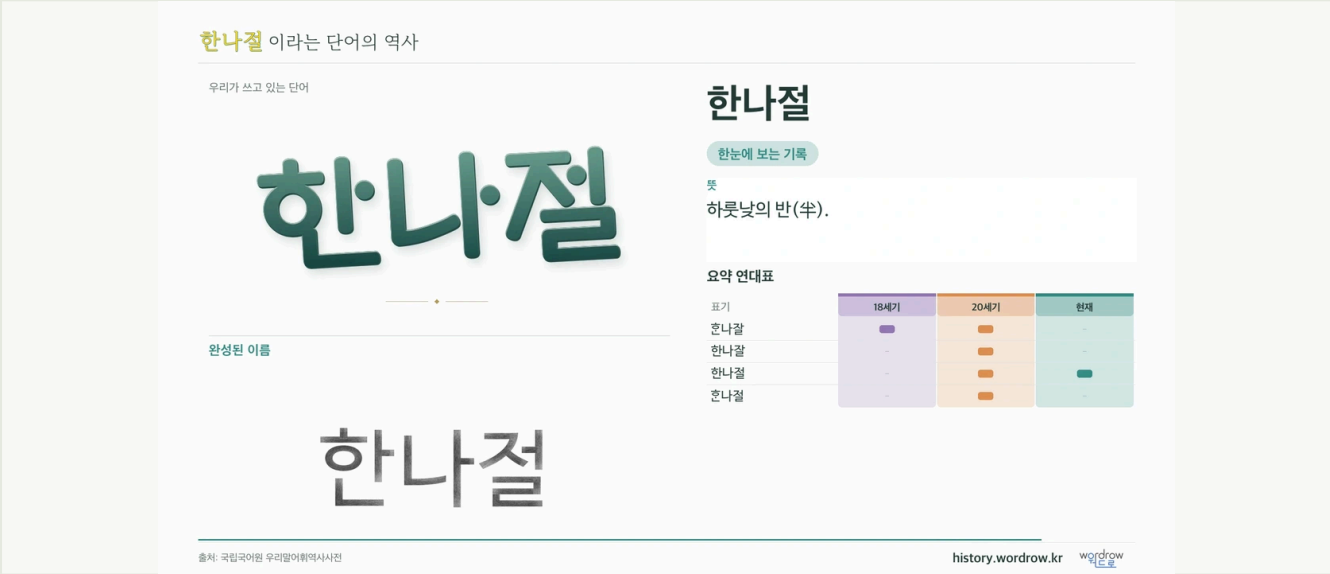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한나절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오늘의 뜻

하룻낮의 반(半).

문헌의 첫 기록
18세기

수록 용례
14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4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한나절'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 하룻낮의 반(半).

한나절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한나절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혼나잘 사전 표기 요약	—	—	—	●→	—	●→
한나잘 사전 표기 요약	—	—	—	—	—	●→
한나절 사전 표기 요약	—	—	—	—	—	●→
혼나절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4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혼나잘
  18세기20세기
- 한나잘

20세기
- 한나절
  20세기현재
- 혼나절
  20세기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4종
혼나잘, 혼나절, 한나잘, 한나절

한나절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등장 시기

'한나절'의 옛말인 '혼나잘'은 18세기부터 나타난다.

말의 구성과 어원

'혼나잘'은 하나를 뜻하는 관형사 '혼'과 명사 '나잘'이 결합한 것이다.

소리와 발음의 특징

18세기 이후 나타난 제1음절의 'ㆍ'가 'ㅏ'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20세기에 '한나잘'이 나타나고 제3음절 '잘'이 '절'로 바뀐 '혼나절', '한나절'이 함께 쓰이다가 '한나절'로 굳어져 현재까지 이어진다.

뜻과 쓰임

18세기의 '혼나잘'은 하루낮의 절반의 의미를 지닌 것이었는데 20세기 이후의 '혼나잘, 한나잘, 한나절'은 하루낮 전체의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문헌 속의 한나절

전체 용례 14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8세기 ᄒᆞᆫ나잘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ᄒᆞᆫ나잘

출처 1748 동문유해 하:1ㄱ

용례 01

문헌 용례

一晌田 ᄒᆞᆫ나잘.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775 역어유해 보:41ㄴ

용례 02

문헌 용례

一晌田 ᄒᆞᆫ나잘.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790 몽어유해 하:1ㄱ

용례 03

문헌 용례

一晌田 ᄒᆞᆫ나잘.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ᄒᆞᆫ나잘, ᄒᆞᆫ나절, 한나잘 외 1종 용례 1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ᄒᆞᆫ나잘, ᄒᆞᆫ나절, 한나잘, 한나절

출처 1908 빈상설 48

용례 04

문헌 용례

거울을 압뒤에다 놋코 이리져리 보며 직구도 발으고 화로슈도 쑴어 ᄒᆞᆫ나잘 히나 보닐 터인ᄃᆡ.

현대어 풀이

거울을 앞위에 다 놓고 이리저리 보며 직구도 바르고 화로수도 뿜어 한나절 해나 보낼 터인데.

출처 1908 은세계 65

용례 05

문헌 용례

최부인의 교군이 쏙겨 나갓더라 그 씨 놀은 한나절이 되락 몰락ᄒᆞ고 최병도의 명은 써러딜락 몰락ᄒᆞᆫᄃᆡ.

현대어 풀이

최 부인의 교군이 쫓겨 나갔더라 그때 날은 한나절이 되락 말락 하고 최병도의 명은 떨어질락 말락 한데.

출처 1910 보감 4:222ㄱ

용례 06

문헌 용례

쳥인이 훈츈셔 ᄉᆞ십리되ᄂᆞᆫ 죠션 경원에로는 잇히 만에 ᄒᆞᆫ번ㅅ식 건너가 ᄒᆞᆫ나잘 동안에 물건을 매ᄆᆡ ᄒᆞᄂᆞᆫᄃᆡ.

현대어 풀이

청인이 훈춘에서 사십 리 되는 조선 경원으로는 이태 만에 한 번씩 건너가 한나절 동안에 물건을 매매하는데.

출처 1911 모란병 48

용례 07

문헌 용례

한시 밧비 가고십흔 마옴으로 엇지 속히 거럿던지 한나잘 겨즉ᄒᆞ야 졔 집에를 당도ᄒᆞ고 입이 썩버러지고 눈이 툭 소슬 일이 싱겻ᄂᆞᆫ지라.

현대어 풀이

한시 바삐 가고 싶은 마음으로 어찌 속히 걸었던지 한나절 겨즉하여(시간이 지나) 제 집에 당도하고 입이 떡 벌어지고 눈이 툭 솟을 일이 생겼는지라.

출처 1912 산천초목 36

용례 08

문헌 용례

두 입을 마죠 ᄃᆡ고 ᄒᆞᆫ나잘은 소곤소곤ᄒᆞ더라.

현대어 풀이

두 입을 마주 대고 한나절은 소곤소곤하더라.

출처 1912 명월정 66

용례 09

문헌 용례

쳘로 길 엽흐로 젼션목 휙근휙근 지나 ᄒᆞᆫ나절은 되어 ᄒᆞ 곳에 니르러 턱 나려 놋터니 그 쟈가 ᄒᆞᄂᆞᆫ 말이.

현대어 풀이

철로 길 옆으로 전선목 회끈회끈 지나 한나절은 되어 한 곳에 이르러 턱 내려 놓더니 그 자가 하는 말이.

출처 1912 황금탑 86

용례 10

문헌 용례

그놈이 그만 지각이 업셔 낫잠을 한나잘식 잣드란 말삼이오 정녕코 그놈의 롱락이오다.

현대어 풀이

그놈이 그만 지각이 없어 낮잠을 한나절씩 잤더란 말씀이오? 정녕코 그놈의 농락이오다.

출처 1913 비파성 129

용례 11

문헌 용례

양녁 십이월이 히가 쌀나셔 날이밝자 ᄒᆞᆫ나잘이 되고 ᄒᆞᆫ나잘리 되지 어두어지ᄂᆞᆫᄃᆡ.

현대어 풀이

양력 십이월이 해가 짧아서 날이 밝자 한나절이 되고 한나절이 되자 어두워지는데.

출처 1921 동아일보 4월 4일 4면

용례 12

문헌 용례

그때는 한나절 되는 낫이것마는 소용치 아니한 뎐등 미돌이 작고 도라갓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2 고목화 81ㄱ

용례 13

문헌 용례

사지육신을 축축 늘어쓰리고 낫잠만 잣나 보구려 히가 한나잘이 되도록 히 노은 거시 무어시냐.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4 조선일보 11월 25일 석간 3면

용례 14

문헌 용례

동리에서 다니는 녀학생에게 한나절만 잘 배호면 대강 눈을 쓸 것이니.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한나절 관련 낱말

나절

한나절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한나절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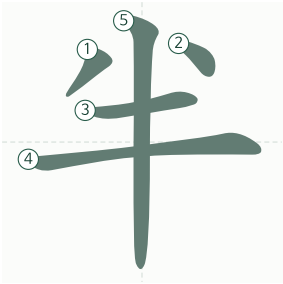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半

뜻·음 반(半) 반

총 5획 · 부수 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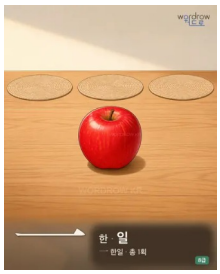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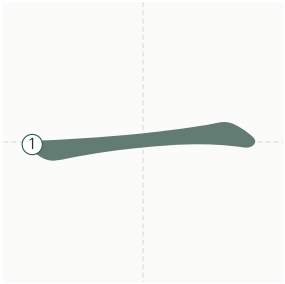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半/

一

뜻·음 한 일

총 1획 · 부수 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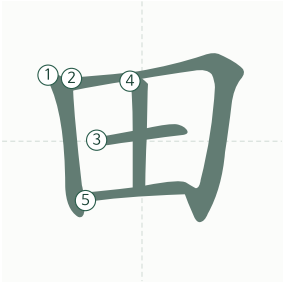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一/

田

뜻·음 밭 전

총 5획 · 부수 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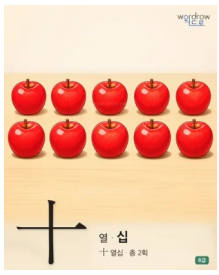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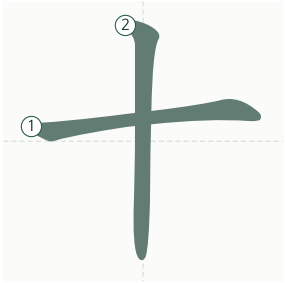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田/

十

뜻·음 열 십

총 2획 · 부수 十





hanja.wordrow.kr/한자/十/

그림·뜻·음·획수: WORDROW 한자 학습 사전 · 각 카드의 주소에서 조회
획순: AnimCJK / Make Me a Hanzi · Arphic Public License · 숫자 배치 편집: 단어의 역사 사전 획수와 다르면 함께 표기했습니다. 사전 상세 항목이 없는 본문 한자: 晌.